

관객들은 '적당히 나쁜 마동석'에 끌린다



마동석

'범죄도시' '악인전' '성난황소' 등 더 나쁜 악당 때려잡는役に 열광 착한 역은 되레 흥행에 마이너스

'착한 마동석? 적당히 나쁜 마동석!' 배우 마동석이 '나쁜 녀석들:더 무비'로 올해 추석 극장 흥행 승기를 잡으면서 주연작들의 흥행 공식도 새삼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영화마다 정의의 편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힘은 세도 착하고 어수룩한 모습일 때보다 '적당히' 나쁜 캐릭터를 연기할 때 관객이 더 열광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모은다. 마동석이 원톱 주연으로 우뚝 선 것은 2016년 여름 '부산행'의 성공 직후인 2017년 10월 '범죄도시'(688만·영화관입

장권통합전산망)부터다. 하정우, 주지훈, 이정재 등 스타급 배우들을 대거 내세운 멀티캐스팅의 시리즈 '신과함께:인과 연'을 제외하고 온전히 마동석이 주연으로 극을 이끈 영화는 이번 '나쁜 녀석들'을 포함해 3년간 총 8편이다. 이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5편, 제작비 회수에 실패한 작품이 3편이다. 흥행 여부는 영화 속 마동석이 어떤 '성향'이느냐에 따라 나뉘었다. '조폭 같은 형사'(범죄도시), '형사 같은 조폭'(악인전·336만 명), '거친 과거를 딛고 착실하게 살려는 남편'(성난황소·159만 명)처럼 적당히 범죄 혹은 범죄자와 타협하면서 자신보다 더 나쁜 악당을 때려잡는 인물일 때 관객의 열띤 반응을 얻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적인 캐릭터, 법과 제도에서 비껴나 통쾌한 복수를 가

하는 마동석에게 관객이 더 열광한다는 의미다. '악인전'의 이원태 감독은 "마동석을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그가 지닌 '힘센 착한 남자'의 이미지를 '냉정하고 집요한 남자'로 바꿔 전형성을 깨려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악인전'은 '범죄도시' 이후 마동석 원톱 주연 영화로는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착한 기간제 체육교사'(동네사람들·46만 명), '팔바보 유도관장'(원더풀고스트·45만 명)으로 나선 영화는 손익분기점에 실패했다. 300만 관객 동원에 다다른 '나쁜 녀석들'에서도 '적당히 나쁜 마동석'의 매력은 계속된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지만 자신보다 더 나쁜 범죄자들을 소탕하려고 나서 '통쾌한 주먹'을 날린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이야기의 힘으로 빛은 1000만 신화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2005년 이준익 감독 '왕의 남자'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한국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그로부터 3년 뒤 이재용 감독은 배용준·전도연·이미숙 등과 손잡고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를 세상에 내놓았다. 또 다시 3년의 시간이 지나 아직 '중량의 신인급'으로 인식된 이준익 감독은 '황산벌'에 이어 또 한 편의 사극을 선보이며 앞선 '웰메이드 한국 사극영화'의 계보를 이었다. '왕의 남자'. 2005년 연말 개봉해 1051만여 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불러 모으며 2003년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에 이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기록을 썼다. 이 수치는 영화가 지닌 이야기의 힘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었음은 물론 당대 흥행 코드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음으로써 신선한 기획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영화는 조선 연산군 시대에 비극적 운명

을 살다 간 두 광대의 이야기를 그렸다. 연극 '이탈'을 원작 삼아 이를 재구성한 탄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궁궐에 불러 들어가 권력 압력에 휘말린 광대 장성과 공길의 이야기를 통해 비열하고도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춰냈다. 그 속에는 어미 잃은 채 폭력적 군주가 된 연산의 설움이 스며들었고, 영화는 녹수리는 간교한 여인의 욕망까지 담아내 우려마저 자아냈다. 하지만 영화는 이야기와 기획력의 힘으로 이를 넘어섰다. 김광현 영화사 하늘 대표는 "캐스팅이나 제작비에 치중하지 않고, 드라마에 집중하며 영화적 본질로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윤우석 기자 tadada@donga.com



2005년 12월29일 개봉한 영화 '왕의 남자'의 포스터 사진.

사진제공 | 시네마서비스

30년 장기 집권 '가요 황제'들의 귀환

신승훈, 내달 호주 오페라하우스 공연
이승환, 5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
임창정, 정규 15집 '십삼월' 흥행 순항

'황제'들이 돌아온다. 올해 또는 내년 데뷔 30주년을 맞는 가수 이승환, 신승훈, 임창정이 관록을 앞세워 팬들 앞에 선다. 저마다 데뷔 이후 긴 공백 없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동료나 후배들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등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은 물론 스스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앞서 김현철과 윤종신도 최근 데뷔 30주년

을 기념해 새 앨범 발표 및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내년 데뷔 30주년을 맞는 신승훈은 올해 10월20일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브랜드 공연을 연다. 오페라하우스 메인홀인 콘서트홀에서 펼쳐는 '2019 더 신승훈 쇼 시드니 스페셜'이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2007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대관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 신승훈의 공연은 더욱 눈길을 모은다. 한국가수로는 2000년 패티김이 처음 이 무대에 섰고, 신승훈이 두 번째다. 2020년 한 해를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새 앨범 발표



신승훈 이승환 임창정

음악인생을 집대성한 무대로 자신의 브랜드 콘서트인 '무적'을 업그레이드한다. 17일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따르면 기상천외한 무대 연출 등으로 화제를 모아온 그는 이번에도 "현재 국내 기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광경을 펼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이들에 앞서 임창정이 최근 정규 15집 '십삼월'을 발표했다. 4년째 가을에 새 앨범을 발표, 흥행에 성공해 "가을=임창정"이라는 남다른 공식까지 지닌 그는 1년 만에 앨범을 공개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자신의 히트곡을 모아 펼치는 주크박스 형태의 뮤지컬 공연도 구상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yo@donga.com

이 와중에 책 내는 구혜선...작가로 컴백?

최근 남편 안재현과 이혼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연기자 구혜선이 에세이집을 출간하며 작가로 다시 나선다.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한 뒤 출판 관련 행사를 통해 대중과 직접 만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17일 "구혜선이 쓴 에세이 '나는 너의 반려동물'을 10월 1일 출간한다"고 밝혔다. 책은 구혜선이 키우는 여섯 마리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

와 사진을 담았다. 출간 시점에 맞춰 관련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출판사 관계자는 "10월에 저자 사인회 등을 열기 위해 서점측과 논의하는 중"이라며 "구혜선도 행사에 참여할 의지를 드러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혜선이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에세이집 출간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구혜선은 앞서 안



구혜선

재현과 겪어 온 불화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지만 아직 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다. 이에 저자 사인회 등 외부 활동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관건은 연예인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연기자로서 활동 및 부수 행사 진

행 등은 매니지먼트사에 권한이 있다. 사인회, 단행본 등 인쇄물도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구혜선이 '작가'로 나서더라도 이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출판사 관계자는 "출간 관련 계약은 저자와 출판사가 직접 맺는 것이라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출판 행사를 연예활동으로 본 사례가 이미 많다. 구혜선의 행사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4

강남·이상화 커플 '동상이몽2' 출연



강남 이상화

10월12일 결혼하는 가수 강남과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상화 커플이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한다. 17일 SBS는 "두 사람이 30일 방송분부터 등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혼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 결혼 이후 신혼부부의 일상 등을 공개한다. 또 사랑을 쌓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과정도 소개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SBS '정글의 법칙'을 통해 만난 뒤 올해 3월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마약 의혹' 비아이, 경찰 소환 조사



비아이

과거 대마초 구매 및 흡연 의혹을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쿵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23)가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비아가 2016년 가수지망생 A씨에게 대마초를 구매 달라고 요구해 건넬받았는지 여부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경찰은 관련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총괄프로듀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두번 할까요' 권상우 "난 손태영뿐"



권상우

배우 권상우가 아내 손태영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과시해 화제다. 권상우는 17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주연 영화 '두번 할까요' 제작 보고회에서 "내가 현실에서 언제 이혼을 해보겠나. 내 생애 이혼은 없다. 난 손태영 밖에 없다. 손태영 포에버"라고 말했다. 이혼 이후 '싱글라이프'를 살게 된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두번 할까요'의 내용에 빚댄 언급이다. 영화는 10월17일 개봉한다.

카카오M, 영화 제작까지 사업 확장

카카오의 콘텐츠 기업 카카오M이 영화 제작에 나선다. 카카오M은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 '공작' 등을 연출한 윤종민 감독의 제작사 영화사 월광의 지분 41%, '신세계' '무뢰한' '아수라' 등을 만든 사나이픽처스의 81%를 인수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M은 본격적인 영화 제작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